

패션상품에 나타난 일본 전통 디자인의 원리

이 경 희

금오공과대학교 섬유패션공학전공 부교수

Japanese Traditional Design Principal Appeared in Fashion Goods

Kyung-Hee Lee

Associate Prof., Dept. of Textile & Fashion Engineering,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2006. 10. 4 접수; 10. 23 채택)

Abstract

Flexibility, love of symbols, small size-these are all qualities that accompany the proclivity towards compactness in Japanese culture. They developed and have been refined to an unusual level in Japan partly out of the necessity to use limited space economically, but these qualities also characterize the aesthetic preferences of the people. Because space is so precious, it receives a great deal of attention in every aspect of life. Over the centuries Japanese have devised innumerable ways to use space that are ingenious in their successful combination of pragmatism, harmony, and beauty.

Folding, stacking, rolling, nesting, carrying, consolidating, miniaturizing and transforming are some of the techniques for living that have created the compact culture. Folding allows a one-dimensional object to be placed in prescribed small space. Stacking objects of the same shape makes use of vertical space, saving valuable horizontal space. Rolling an object reduces it to a tidy cylinder without creasing it, creating yet another form of repose for functionally flat things. Nesting several identically shaped objects of graduated sizes is known as ireko. Carrying things by hand makes them available for any occasion, by plan or on impulse. Consolidating is to bring together the multifarious systems of living into an integrated whole. Miniaturizing things is a way to bring even the universe down to the scale of a human hand. Transforming the face of things is another notable propensity in the Japanese life style.

Each one is put to use in countless ways, suggesting principles and conceptions that encapsulate the wisdom of tradition. In this study I wish to investigate the principals of Japanese traditional design and the applied case in fashion goods.

Key Words: Japanese Traditional Design Principal(일본 전통디자인의 원리), Fashion Goods(패션상품), Flexibility(적응성), Small Size(소형), Compactness(치밀함)

[†]Corresponding author ; Kyung-Hee Lee

Tel. +82-54-478-7713, Fax. +82-54-478-7710

E-mail : k.lee@kumoh.ac.kr

* 이 논문은 2005년 금오공과대학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서론

최근, 「한글」을 활용한 패션 디자인이 국내 외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 또한, 「한류」가 시대의 키워드가 되어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급증되고 있다. 이것은 글로벌 시대를 사는 현대인에게, 어느 한 민족의 문화는 그 민족만의 문화로 국한되지 않고,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글로벌 문화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현대 패션계에서 일본인 디자이너들의 약진은 괄목할만하고, 아시아를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이들 일본인 디자이너들은 기모노(着物)를 비롯한 일본의 전통 디자인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의상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발표하는 컬렉션은 일본의 전통 디자인을 세계에 알리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좁은 일본 열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쾌적하게 살기 위해서는 좁은 스페이스를 유용하게 활용해야 하므로, 전통적으로 일본인들은 이를 위한 많은 디자인의 궁리들을 이끌어내었다. 예를 들면, 의식주에 필요한 다양한 생활용품의 디자인에 접기, 쌓기, 말기, 겹침, 휴대, 조합, 축소, 변형 등의 디자인 원리들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디자인 원리들은 좁은 공간내에서 기능성을 발휘하기 위한, 디자인의 적응성을 높인 사례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적응성의 원리는 일본 전통 디자인의 근간을 이루어, 현대의 일본 디자인에 까지 계승되었고, 또 일본인 디자이너들을 통해 세계로 전파되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¹⁾. 일본의 전통 디자인이 세계에 널리 알려져서인지, 일본 전통 디자인의 원리와 통하는 패션상품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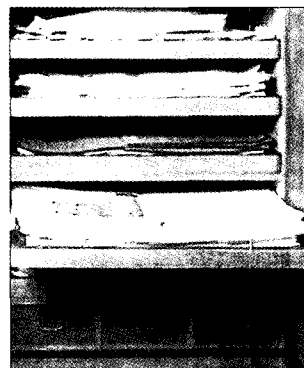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소개되지 못했던 일본 고유의 전통 디자인의 원리를 문헌고찰을 통하여 8가지로 정리하였다. 또한, 적응성, 소형, 치밀함으로 상징되는 일본 전통 디자인의 원리들이 시대와 국경을 초월하여, 현대의 패션상품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활용되는지를 고찰하였다.

II. 일본 전통 디자인의 원리와 특징

1. 접기(Folding, 畳)의 원리와 특징

일본인들은 전통적으로 접기를 디자인에 잘 활용해왔다. 네모난 한 장의 종이로 온갖 형태를 만들어내는 종이접기(오리가미)의 전통은 현대에도 종이공예의 한 영역으로 활발히 행해지고 있다.

접기란 1차원의 물건을 좁은 공간에 놓을 수 있게 해준다<그림1>. 크고 평평한 시트를 몇 번 접으면, 그 본성을 전혀 손상하지 않고, 사이즈를 줄일 수 있다. 3단의 우산을 접으면 가방에 들어갈 정도로 사이즈가 줄어들어, 휴대에 편리



<그림1> 일본의 실험장인 「단스」와 접어 보관하는 물건들, The Compact Culture, p.34

한다. 심지어 종이로 만든 랜턴이나 의식시 펼치는 금병풍과 같은 3차원의 물체조차, 보관시 접으면 평평한 모양이 되거나 사이즈가 줄어든다²⁾. 이렇게 접은 물건들은 필요시 펼치면, 다시 한번 본래의 기능을 위한 형태로 돌아오고, 본래 갖고 있는 모양의 아름다움도 회복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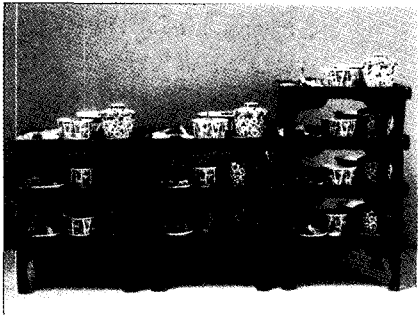
2. 쌓기(Stacking, 重)의 원리와 특징

같은 형태의 물건을 쌓으면 수직의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평의 공간도 좀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다³⁾. 겹쳐 보관한다는 것은 실용적인 행위지만, 물건을 겹치거나 내려놓는 행위는 움직임의 아름다움도 더해준다. 물건을 쌓는 것은 그것들을 3차원으로 통합하여 조각적인 형태로 만들고, 쌓은 물건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각 유닛의 개인성과 자율성을 회복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림2>는 차곡차곡 쌓여진 상으로, 같은 형

태의 상을 보관 시 겹쳐쌓아 깔끔히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심미적인 아름다움도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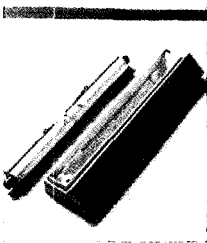
일본의 전통 디자인에 나타난 겹쳐쌓기의 원리는 술잔, 찬합, 스시그릇, 상, 좌식의자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⁴⁾.



<그림2> 일본의 전통 상 쌓기, The Compact Culture, p.51

3. 말기(Rolling, 卷)의 원리와 특징

물체를 실린더 형태로 말면 주름없이 깔끔히 물체를 보관할 수 있고, 「두루마리」라는 보관하기 좋은 또 다른 형태의 기능성을 낳는다. 한중일에는 오랜 옛날부터 서화나 직물을 두루마리로 보관하는 전통이 있는데⁵⁾, 이러한 일본의 두루마리 그림을 「에마키(繪巻)」(<그림3>)라고 한다. 에마키의 두루마리를 펼치면, 말려있을 때와는 다른 새로움을 나타낸다. 에마키의 길고 1차원적인 예술에는 풍경과 풍경, 그리고 움직임이 끊어지지 않고 흐르는 듯이 나타난다. 먼저 풀린 것은 다시 말려지고, 필요시 펼침으로써 또 언제든지 불러올 수 있다. 이처럼 물체를 만다는 것은 사라짐과 출현의 지속적인 변환을 만들어내고, 제한된 공간내



<그림3> 에마키의 두루마리, The Compact Culture, p.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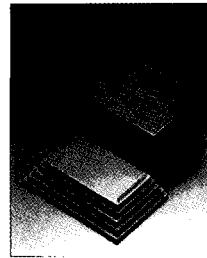
에서의 보관을 효율적으로 해주는 특징도 있다.

생활주변에서의 말기의 사례를 보면, 한여름의 열기를 막아주는 대발도 실린더형으로 말아 보관하고, 또 필요시 펼친다⁶⁾. 음식에서는 초밥

이나 김밥을 말아서 둥근 형태를 만들어낸다.

4. 겹침(Nesting, 入)의 원리와 특징

한 벌 세트란 형태는 같지만, 크고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러한 사례는 「마스(升)」라는 일본의 전통적인 뒷박에서 찾아볼 수 있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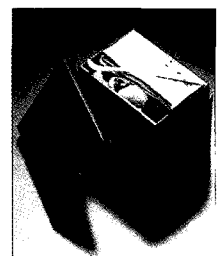
<그림4> 일본의 전통적인 찬합, The Compact Culture, p.67

봉건시대의 일본에서는 야유회에 <그림4>와 같은 찬합이 여러개 준비되는데, 각각은 다른 종류의 음식을 담는다. 그러나 그 상자들은 같은 형태의 대, 중, 소의 사이즈라 사용 후, 돌아올 때에는 가장 큰 찬합 안에 차례로 작은 찬합을 담아 갖고 돌아올 수 있는 편리한 특징이 있다.

생활 속에서 보는 겹침의 사례는 그릇세트나 낚시대세트, 혹은 큐빅과 같은 놀이도구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5. 휴대(Carrying, 携)의 원리와 특징

의식에 필요한 많은 물건을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운반하기 위한 휴대에는 이전부터 많은 궁리가 모아졌는데, 손에 든다는 것은 가장 쉽고도 유용한 방법이다. 일본 전통 디자인에서 볼 수 있는 손에 드는 상자인 「데바코(手箱)」에는 작고, 휴대가 쉽지만 의식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



<그림5> 일본의 전통적인 휴대용 다기상자, The Compact Culture, p.74

<그림5>는 일본에서 예로부터 다도에 사용되어진 데바코이다. 야외에 나가 차를 즐길 경우, 필요한 도구들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어느 곳이나 들고 가서 차를 즐길 수 있도록 휴대에 간편하게 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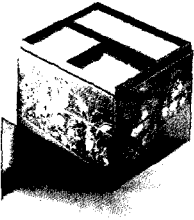
이러한 지혜와 전통은 현대생활에 적용된 새로운 창안을 낳는다. 현대생활 속에서의 후대의 사례는 보온용 런치박스, 배달용 식기세트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⁸⁾.

6. 조합(Consolidating, 組)의 원리와 특징

조합이란 다양한 부품들을 통합하는 것이다. 좁은 열도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일본인들은 좁은 공간속에서의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정리라고 하는 기능적인 요구에 맞는 시스템을 조합에서 찾았다.

<그림6>은 17세기 에도시대(江戸時代, 1603-1868)의 금박 옷칠을 한 문방구를 조합한 상자이다. 상자안에는 먹과 붓과 자, 베틀 등의 각종 문방구들이 갖추어져 있어, 휴대와 용도에 적합

하게 조합되어져 있다. 일본인들의 이러한 지혜는 생활속에서도 나타나, 계단과 서랍장을 조합하거나, 대형의 나무상자안에 다시 소형의 나무상자들이 채워지도록 조합하거나⁹⁾, 난방기구인 고다츠와 서랍장을 조합하는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¹⁰⁾.



<그림6> 금박 옷칠한 17세기의 문방구상자, The Compact Culture, p.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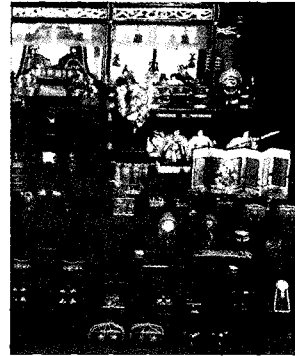
7. 축소(Miniaturizing, 雛)의 원리와 특징

축소란 원래 물체의 사이즈보다 줄여, 사람의 손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동양사상에서는 인간 그 자신이 그를 둘러싼 무한한 우주의 축소로서의 특별한 우주이고, 인간이라는 소유주는 세계의 대우주에 연결되는 미묘한 관계라고 생각되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문화는 오랜 옛날부터 이러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고 알려져 왔다. 그리고 이것이 세계 사람들에 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하였다.

황제의 인생시스템은 일반대중들에게는 이상적인 삶의 시스템으로 동경된다. 따라서 이상적인 시스템의 작은 모델을 창조하고 지님으로써, 사람들은 그들 자신에게도 행복이 찾아온다고

믿었다. 이러한 생각이 사람과 물건을 축소한 인형을 만든 개념이다¹¹⁾.

<그림7>은 에도시대의 여자아이의 축제인 히나마츠리(雛祭)를 위한 인형과 미니어처의 생활도구



<그림7> 히나마츠리의 인형. The Compact Culture, p.95

들이다. 황제와 황후의 인형과 그들의 생활을 위한 가재도구들이 미니어처로 제작되었다. 히나마츠리가 오면 여자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이러한 인형들을 집에 진열해놓고, 그 여자아이가 황후처럼 행복하게 잘 살기를 기원하였다.

8. 변형(Transforming, 變)의 원리와 특징

사물의 형태 변형은 일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서는 또 다른 의식할 만한 경향이다. 하나의 스페이스가 변화하는 용도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변형될 수 있다. 간단한 도구 또는 매일의 액세서리의 사용이 완전히 다른 목적을 위해 변형된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공간조차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일본의 전통적인 주거형태인 다다미방을 나누어 차단하는 벽은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변형되어 활용될 수 있다¹²⁾. 즉, 벽을 고정시키지 않고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벽을 이동시킴으로써 대인수를 위한 넓은 방, 혹은 소인수를 위한 좁은 방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테크닉은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8>은 일본의 전통 수건인 테누구이(手拭)이다. 테누구이는 보통 33센티 폭의 90센티 길이의 목면으로 만들어진다. 이 수건은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그림8> 테누구이의 변형, The Compact Culture, p.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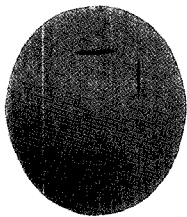
변형되어 사용된다. 머리에 쓰는 것만으로도, 펼쳐서 머리에 얹거나, 머리에 쓰고 뒤통수에서 묶거나, 턱 밑에서 묶거나, 테누구이를 접어 꼬아서 이마에 매기도 한다¹³⁾. 이처럼 한 장의 테누구이가 상황과 용도에 따라 이런 저런 형태로 변형될 수 있다.

III. 패션상품에 나타난 일본 전통 디자인의 원리

1. 패션상품에 나타난 접기의 원리

일본의 민족복인 기모노는 직선재단에 의한 여러개의 평평한 천 조각이 이어져서 완성된다. 따라서 보관시 행거에 걸지않고 접어 설합장인 「단스(簞笥)」에 보관한다. 단스에 보관된 기모노는 구기지않고 깔끔히 접힌 상태이므로, 입을 때 꺼내 펼쳐 입으면 다시 3차원의 기능을 회복한다. 기모노는 긴 길이로 제작되어, 착용자의 키에 맞추어 길이를 조절하고, 오비로 허리에 고정시킨다. 이러한 여유가 착용자의 사이즈에 맞추어 완성된 3차원의 서양 드레스와는 다른 점이다.

패션 디자이너 미야케 이세이(三宅一生)는 일본 전통 디자인의 원리를 그의 작품에 잘 표현하고 있다. 미야케는 「한 장의 천(A piece of cloth)」이라는 테마를 197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추구해 오고 있다¹⁴⁾. 특히, 플리츠 플리츠(Pleats Please) 시리즈는 폴리에스테르의 열가소성을 이용하여 영구 플리츠를 잡은 천으로 옷을 만들었는데, 장기적인 베스트셀러로 평가받고 있다. 미야케의 플리츠복은 체형을 커버하고, 착탈이 쉽고, 관리가 쉬운 장점으로 대중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대표적인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으로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림9> 미야케 이세이의 리듬 플리츠, ISSEY MIYAKE, p.57

<그림9>는 미야케 이세가 1990년 S/S컬렉션에서 발표한 「리듬 플리츠」라는

제목의 작품이다¹⁵⁾. 이 옷은 펼쳐놓으면 평평한 1차원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나, 인체에 착용함에 의해 3차원의 형태로 바뀐다. 따라서 보관 시에도 행거에 걸지 않고 평평한 상태로 접어 보관하는 전통적인 기모노의 보관방법을 택할 수 있다. 이러한 접기의 특징이 플리츠 플리츠를 여행 시 휴대에 간편한 옷으로도 특징지었다.

2. 패션상품에 나타난 쌓기의 원리

패션에 나타난 쌓기의 원리는 겹쳐입는 레어드 룩(layered look)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림10> 야마모토 요지가 디자인한 코트 드레스의 레어드 룩. Japonism in Fashion, p.157

<그림10>은 야마모토 요지(山本耀司)가 1994년 F/W 컬렉션에서 발표한 것으로, 5벌을 겹쳐입은 드레스이다. 블루의 원피스 위에 퍼플, 그린, 블루, 화이트의 배색미를 살린 같은 형태의 코트 드레스가 겹쳐 입혀진 레어드 룩이다¹⁶⁾. 이것은 마치 일본 헤이안 시대(平安時代)의 겹쳐입는 궁중복식인 카사네노이로메(重色目)를 연상시킨다.

헤이안의 귀족들은 계절에 맞추어 배색을 달리한 옷을 겹쳐입어 자연의 색채미를 복식의 배색미로 바꾸어, 사계절의 순환에 따른 배색미를 즐겼다¹⁷⁾. 이를 근거로 여러벌의 옷을 겹쳐입는 궁정에복인 슈니히도에(十二單)라는 전통예복이 창안되었고, 슈니히도에는 지금도 황실의 예복으로서 각종 의식에서 착용되고 있다.

이처럼 겹쳐입는 옷의 전통을 가진 일본인 디자이너들이 서구에서 레어드 룩을 탄생시킨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이것이 세계의 많은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져 유행된 것은 일본의 전통 디자인의 원리에 세계인도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림11> 일본의 기모노와 오비,
美しいキノノ(173號),
p.408



<그림12> 골티에의 4줄 겹친
네클레스, MODE et MODE
No.285, p.31



<그림13> 발렌티노가 디자인한
벨트 백, ACCESSORI S/S 2000,
p.149



<그림14> 이세이 미야케의 A
POC 니트웨어. Knitwear in
Fashion, p.119

3. 패션상품에 나타난 말기의 원리

직물의 아름다움 역시, 정지한 천의 두루마리로 보관되고, 필요시 펼쳐 재단하고 바느질되어 옷으로 만들어진다. 또한, 주단가게에서 직물을 보관할 때, 말아두면 소재를 보호하고 구기지 않게 해주는 장점도 있다. 뿐만 아니라 선반에 겹쳐쌓아 보관할 수 있으므로 좁은 공간에 많은 직물을 보관할 때 편리하고, 소비자들이 찾아오면 두루마리를 펼쳐 보임으로써 그 디자인과 소재를 간단히 보여줄 수도 있다.

기모노직물의 두루마리는 36센티 폭에 11미터의 길이로, 이 분량으로 누구에게나 맞는 한 벌의 기모노를 만들어낸다. 기모노의 길이는 허리에서의 접음에 의해 착용자의 키에 맞추어 길이가 조절되고, 오비로 고정시킨다. 오비의 폭과 형태, 그리고 묶는 방법과 디자인은 착용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그림11>은 일본의 민족복인 기모노에 오비(帶)를 묶은 모습이다¹⁸⁾. 오비는 종류에 따라 폭과 길이가 다소 다르지만 수 미터 길이의 직물을 그림과 같이 등글게 말아 끈으로 고정시켜 장식한다.

4. 패션상품에 나타난 겹침의 원리

패션상품에 나타난 겹침의 사례는 액세서리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네클레스나 브레스렛의 줄을 겹쳐거나, 벨트를 겹쳐매는 식의 치장으로, 반복에서 오는 리듬감과 임팩트를 즐기기도 한다.

<그림12>는 장 폴 골티에 (Jean-Paul Gaultier)의 1994년 S/S 컬렉션에서 발표된 4줄이 겹쳐진 네클레스이다¹⁹⁾. 같은 형태의 대, 중, 소의 사이즈의 차이를 둔 네클레스의 겹침이, 일본 전통 디자인의 겹침의 원리와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5. 패션상품에 나타난 휴대의 원리

패션상품에서의 휴대의 원리는 백(bag)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백은 어깨에 매거나 손에 드는 것이 주된 휴대법이지만, 다른 패션상품과의 조합을 시도하여 휴대를 한층 간편하게도 한다.

<그림13>은 1999년 프레타포르테에서 발표된 발렌티노의 벨트 백이다²⁰⁾. 벨트 백은 벨트와 백의 기능을 합친 것으로, 백을 허리에 벨트처럼 맴으로써, 백을 손에 드는 수고로움을 없애고 손을 자유롭게 하였다.

6. 패션상품에 나타난 조합의 원리

패션상품에 나타난 조합의 사례는 흔하지는 않지만, 크고 작은 가방을 하나로 조합한 루이 뷔통의 여행용 가방 등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그림14>와 같은 미야케 이세이의 'A-POC(A Piece of Cloth)'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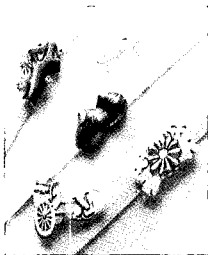
<그림14>는 미야케 이세이가 1999년 S/S 컬렉션에서 발표한 스트레치 나일론 소재의 자카드 니트의 작품이다. 이 작품은 튜브형으로 편성되었고, 복식의 각종 아이템을 즉석에서 잘라 완성시킨다고 하는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제작되

었다²¹⁾. 이러한 아이디어는 일본 전통 디자인의 조합의 원리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A-POC은 전통적인 니트의 기법과 하이테크 놀로지가 결합한 예이다. 드레스, 셔츠, 스커트, 팬츠, 점프슈트, 양말, 언더웨어, 모자, 크고 작은 백과 벨트 등, 니트로 가능한 온갖 복식의 아이템들이 조합되어 있다. 그중 소비자가 원하는 아이템이 있을 경우, 스텝이 가위로 원하는 아이템만을 잘라 본체에서 분리하는 것이다. 이것은 니트 튜브를 통한 사람과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한다. A-POC은 착용자가 완성하는 미래의 드레스의 예를 보여준다.

7. 패션상품에 나타난 축소의 원리

생활속에 나타난 축소의 예는 인형, 분재, 모형, 향수병, 장신구 등에서 다수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패션상품에서의 축소의 원리는 향수병이



<그림15> 미니어처를 사용한 다양한 오비도메의 디자인. 美しいモノ(174號), p.99

나, 장신구 등으로 많이 사용된다. <그림15>는 기모노에 사용되는 허리띠인 오비(帶)를 묶어 고정시키는 오비도메(帶留)이다²²⁾. 오비도메의 장식으로는 다양한 디자인이 있으나, <그림15>에서는 산호, 조개, 마차, 국화 등이 축소된 미니어처를 달아, 기모노의 장신구 역할을 한다.

8. 패션상품에 나타난 변형의 원리

패션상품에 나타난 변형의 예는 스카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스카프는 매는 방법을 바꿈으로써, 한 장의 스카프로 수십가지의 변형된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다.

<그림16>은 변형의 원리를 도입한 캐주얼 백이다²³⁾. 이 캐주얼 백은 끈을 조절함에 의해 3가지 형태로 변형된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즉, 어깨에 매면 섹(sac)이 되고, 손에 들면 손가방, 한쪽 어깨에 매면 숄더 백(shoulder bag)의 기능을 갖게 됨으로써, 사용자의 다양한 상황에 대



<그림16> 캐주얼 백의 3가지 변형. ミセス No.540, p.288

응할 수 있게 하였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적응성과 소형, 치밀함으로 상징되는 일본 전통디자인의 원리를 접기, 쌓기, 말기, 겹침, 휴대, 조합, 축소, 변형 등의 8가지로 정리하여 고찰하고, 이러한 원리들이 현대 패션상품에서 다양한 기능성과 심미성을 제공하면서 폭 넓게 활용되고 있는 사례들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었다.

1. 일본 전통 디자인에서 볼 수 있는 접기의 원리는 물건을 접어 보관하는 단스에서 잘 나타나고, 현대 패션에서는 이세이 미야케의 플리즈 플리즈 시리즈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일본 전통 디자인에서 볼 수 있는 쌓기의 원리는 같은 형태의 물건을 겹쳐 보관하는 것으로, 패션에서는 레이어드 룩에서 찾아볼 수 있다.
3. 일본 전통 디자인에서 볼 수 있는 말기의 원리는 두루마리에서 볼 수 있고, 패션에서는 오비의 매는 방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4. 일본 전통 디자인에서 볼 수 있는 겹침의 원리는 대, 중, 소의 크기가 다른 물건을 겹치는 것으로, 현대 패션상품에서는 네클레스 등과 같은 액세서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5. 일본 전통 디자인에서 볼 수 있는 휴대의 원리는 몸에 지니 운반하는 것으로, 현대 패션상품에서는 발렌티노의 벨트 백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6. 일본 전통 디자인에서 볼 수 있는 조합의 원리는 목적에 필요한 것들이 갖추어진 상태로,

현대 패션에서는 이세이 미야케의 A-POC에서 구현된다.

7. 일본 전통 디자인에서 볼 수 있는 축소의 원리는 인형 등에서 볼 수 있는데, 현대 패션상품에서는 오비도메와 같은 장신구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8. 일본 전통 디자인에서 볼 수 있는 변형의 원리는 하나의 물건을 다양한 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형태를 바꾸는 것으로, 현대 패션상품에서는 휴대방법을 변형할 수 있는 캐주얼 백 등에서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 1) Yoshida Mitsukuni (1982). *THE COMPACT CULTURE*. Tokyo: MAZDA, pp.26-32.
- 2) Ibid., p.39.
- 3) Tsuneko S. Sadao (2003). *Discovering the Arts of Japan*. New York: KODANSHA, p.263.
- 4) Yoshida Mitsukuni (1982). Op. cit., p.49.
- 5) 한국의 미 編 (1995). *월간 한국의 미(36호)*. 서울: 한국의 미, p.18.
- 6) Yoshida Mitsukuni (1982). Op. cit., p.61.
- 7) Ibid., p.65.
- 8) Ibid., p.81.
- 9) 文化出版局編 (1995). *季刊銀花(100號)*. 東京: 文化出版局, pp.58-59.
- 10) Yoshida Mitsukuni (1982). Op. cit., p.90.
- 11) Ibid., p.94.
- 12) Tsuneko S. Sadao (2003). Op. cit., p.209.
- 13) Yoshida Mitsukuni (1982). Op. cit., p.106.
- 14) 廣島市現代美術館編 (1990). *三宅一生展*. 東京: 朝日新聞社, p.71.
- 15) Fondation Cartier pour l'art Contemporain 編 (1998). *ISSEY MIYAKE*. New York: SCALO, p.57.
- 16) 京都服飾文化財團編 (1994). *Japonism in Fashion*. Tokyo: 京都服飾文化財團, p.157.
- 17) 이경희 (1997). 일본 平安시대의 복식색채의 장의 특성. *服飾 31호*, pp.17-31.
- 18) 婦人畫報社編 (1995). *美しいキモノ(173號)*. 東京: 婦人畫報社, p.408.
- 19) Mode et Mode社編 (1996), *Mode et Mode(No. 285)*. 東京: Mode et Mode社, p.31.
- 20) Zanfi Editori 編 (2000). *ACCESSORI N.28*. Italy: Zanfi Editori, p.149.
- 21) Sandy Black (2002). *Knitwear in Fashion*. New York: Thames & Hudson, p.119.
- 22) 婦人畫報社編 (1995). *美しいキモノ(174號)*. 東京: 婦人畫報社, p.99.
- 23) 文化出版局編 (2000). *ミセス(540號)*. 東京: 文化出版局, p.288.